

#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 Labor market effects of sports and exercise: Evidence from Canadian panel data

■ Lechner, M. & Sari, N, Labour Economics, 35, pp.1-15, 2015.

기존 연구들은 육체적 활동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서, 육체적 활동이 더 높은 생산성과 따라서 더 높은 소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육체적 활동은 한편으로 다른 여가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육체적 활동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자본, 팀 기술, 자기훈련을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활동과 운동의 다양한 수준들이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캐나다의 Canadian National Population Health Survey를 사용하였다. 기간은 1994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이 자료에는 1994

년에 20~45세였던 14,117명으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스포츠 활동과 운동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분석자료에는 또한 라이프스타일, 건강, 육체적 활동에 관한 풍성한 정보가 존재한다. 분석자료의 이러한 특징은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용량-반응(dose-response) 관계를 추정하게 해준다. 스포츠 활동과 운동에는 달리기, 사이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교실, 수영, 하키, 춤, 집에서의 운동, 걷기, 골프, 정원손질, 기타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분석대상인 개인들을 inactive, moderately active, active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와 운동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소득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WHO가 최소한의 육체적 활동으로 권장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nactive에서 WHO가 권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정원손질, 걷기만으로도 상당수 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이 자신의 육체적

활동을 과장할 수도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종류의 스포츠 활동과 운동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다른 종류의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The Great Recession was not so great**

▮ Van Ours, J. C. *Labour Economics*, 34, pp.1-12, 2015.

몇 십 년 동안,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변동을 거듭하였지만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대침체(Great Recession)는 이전의 수십 년간 전례가 없었던 GDP 감소로 특징지어진다. 2009년에,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실질 GDP가 2% 감소하였다. 이러한 큰 부정적인 경제적 충격은 모든 나라들에서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 실업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배경에 기초하여, 이 논문은 20개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하여, 대침체의 함의를 논의한다. 본 논문은 대침체는 1980년대의 침체와 비교하여, 두 침체기 동안 실업률의 높은 국가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 관계는 어떤 노동시장들이 다른 노동시장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 근로자들은 실업률과 고용률의 측면에서 모두 대침체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장년의 근로자들의 고용률도 영향을 받았으나, 고령 근로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침체 이후 실업의 전반적인 그림은 혼합되어 있으며,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낮은 실업률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노동시장제도가 실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종류의 모델을 추정하였으며, 주요한 결론은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매우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경제의 호황과 불황에 비하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로서, 예를 들면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이 인구고령화와 관련은 있지만, 현재의 높은 실업률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 또한 실업급여의 관대성은 경기 순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몇 나라에서 이미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Making work pay for the indebted?  
Assessing the effects of debt services  
on welfare recipients**

▮ Koning, P. *Labour Economics*, 34, pp.152-161, 2015.

이 논문은 부채 문제를 가진 Dutch Social Assistance 수급자의 특정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SA(Social Assitance) 급여는 지방정부가 다른 급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안전망이다. SA 수급자가 근로를 재개하더라도, 소득 수입의 상당한 비율이 채권자에게 지불되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적 근로를 시작하는데 있어 큰 디스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SA의 부채에 대한 개입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진다: 개인의 부채를 재구조화, 새로

운 부채 문제의 발생을 예방, 근로를 재개할 직접적인 인센티브의 증가. 이 논문은 부채 프로그램이 SA 수급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기 위해, Timing-of-Events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의 주요 발견은 부채 프로그램이 SA 수급자로부터의 탈출을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것이며, 그러나 이것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이 아닌 노동시장 탈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의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개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에 배정된 개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불쾌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경험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 탈출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caseworker에 의해서 배정되었으나 부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은 개인들에 대해, 위협효과(threat effects)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위협효과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도 적은 정도로 나타났다. 위협효과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재무 상황과 소득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실업과 삶의 만족 간의 부정적인 관계가 잘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논쟁들이 실업이 삶의 만족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둘러싸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개인의 경험, 배경적 영향들,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주관적 복지를 발생시킨다고 제안한다. World and European Values Surveys, National Accounts Official Country Dat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Report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Income Inequality의 자료를 사용하여 95개 국가의 398,533명의 개인들에 대한 자료(1981~2009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네 가지 경쟁적인 이론-기초적 가설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수준의 위계적 선형 모델을 사용하였다. 가설은 실업이 개인적, 배경적, 부가적, 또는 배수적인 영향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 그리고 국가 수준의 실업 간의 영향의 배수적 상호작용을 지지한다. 실업자 개인은 다른 개인들보다 덜 만족하며, 그리고 실업이 증가할 때 그들의 만족은 학생, 주부, 고용된 개인 아래로 더 떨어진다; 그러나 은퇴자들은 실업자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개인의 실업이 다양한 노동시장 지위들과 국가의 실업률의 배경에서 이해되는 모델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전의 이론적 모델들의 조명 하에서 이 발견들을 논의한다. 마지막 결론으로서, 개인화되고 맥락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실업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Individual troubles, shared troubles:  
The multiplicative effect of individual  
and country-level unemployment on  
life satisfaction in 95 nations (1981-  
2009)**

■ Calvo, E., Mari, C. A. & Sarkisian, M. Social Forces, 93, pp.1625-1653, 2015.

**Social policy and perceived immigrant labor market competition in Europe: Is prevent better than cure?**

■ Heizmann, B. *Social Forces*, 93, pp.1655-1685, 2015.

최근 수십 년 간, 유럽에서의 증가된 이민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이동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고용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의 핵심적 측면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유입은 그들이 많은 지역에서 직업들을 빼앗는다는 염려를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지금까지, 인식되는 위협과 편견의 더 구체적인 형태를 다루는 것 대신에, 통합지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민자들이 자국민으로부터 직업을 빼앗는다는 인식의 선행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이 격차에 접근하고자 한다. 지각되는 경제적 경쟁의 이 형태는 많은 나라들에서 이민자에게 부정적인 관계들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시장 제도 내에 내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호법제, 그리고 실업급여수준의 두 개의 핵심적인 측면들의 미치는 영향에 있다. 자료로는 European Social Survey를 사용하였으며, 개인, 지역, 국가 수준의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수준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급여가 지각되는 경쟁을 약화시키며, 이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모델에 통합정책, 복지체제유형, 그리고 실업률, 노동조합 특징과 같은 다른 구조적 요인들을 포함한, 몇 개의 다른 정책 지표들을 포함한 경우

에도,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용보호는 지각되는 경제적 위협에 대해, 지역적 실업의 영향을 완화시킴으로써 오직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고용보호는 실제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지각되는 경쟁을 증가시켰다. 이 분석결과들은, 예방이 항상 치료보다 좋다는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다.

**Income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 Bloome, D. *Social Forces*, 93, pp.1047-1080, 2015.

미국에서 가족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세대 간의 경제적 이동성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19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는 시간당 임금, 연소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가족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불평등의 증가는 이 불평등이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켰다. 가장 널리 논의된 한 가설은, 높은 불평등이 세대 간 이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가족소득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건강, 교육, 그리고 돌봄을 개선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부모의 자원들이 감소하였다. 발산의 양 그리고 속도는 또한 미국의 주들에 따라 달랐다. 연구자들과 정책 분석가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평등이 아이와 성인 시기의 개인의 소득 간 연결을 강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성과 동반될 수 있다는 염려를 표출하였다.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다양한 정

부 자료들을 사용하여, 본 논문은 불평등과 이동 간의 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주와 코호트의 차이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미국에서 불평등이 이동성을 형성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경험한 자녀의 불평등은 그들의 성인에서의 경제적 이동성

과 타당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Fomal 분석은, 상쇄하는 효과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이동성을 높이는 힘들은 이동을 감소시키는 영향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미국의 배경에서 소득의 세대 간 이전이 불평등 변화에 있어 별로 책임이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함의한다.